

중앙종무기관 내년예산 210억

제182회 중앙종회, 총무원 원안대로 통과 종무원법 지방종정법 호계원법 등도 개정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5% 늘어난 210억3743만9000원으로 정해졌다. 특별회계 예산은 137억3603만8000원이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지난 9일 제182회 정기회를 속개해 불기 2554(2010)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을 확정하고, 총무원법 등 각종 법령을 개정한 뒤 폐회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제33대 총무원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총무원이 올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아울러 종무원법 개정으로 승탑기산 방식 논란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진통 끝에 생산해낸 점도 의의다.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불기 2554(2010)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각 단위 기관별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총무원은 7.8%, 교육원은 1.6% 증액됐으며 포교원은 포교사업 확충을 위해 13.5%로 대폭 인상했다. 아울러 중앙종회는

3.2%, 호계원은 3.2%, 종정기관은 0.7%로 역시 각각 증액됐다. 중앙종무기관에서 종법령에 의해 진행해야 할 사업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총무원의 경우 총무부를 제외한 부서는 동결 내지 삭감을 원칙으로 해, 이제 막 대동한 집행부에 부담을 줄여줬다.

▶관련기사 3편

이와 함께 정기총회에서는 조계종 소속 말사 주지와 교구본사 국장의 자격연한을 승탑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종무원법과 지방종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출가자 간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본 교육기간의 승탑기산 여부에 대한 최종적 절충안이어서 눈길을 끈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승가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기본교육 4년 이수 후 비구(니)계 수지가 제도화됐다. 이때 승탑기산의 기준이 1995년을 기점으로 달라지면서, 1994년 이

전 수계자와 1995년 이후 수계자 간 승탑이 4-5년씩 차이가 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당초 중앙종회 승탑기산문제해결특별위원회(위원장 보인스님)는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본교육기간 4년간의 승탑을 소급해 적용한다'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1995년 이후 출가자들의 청원을 반영한 것인데, 종진 스님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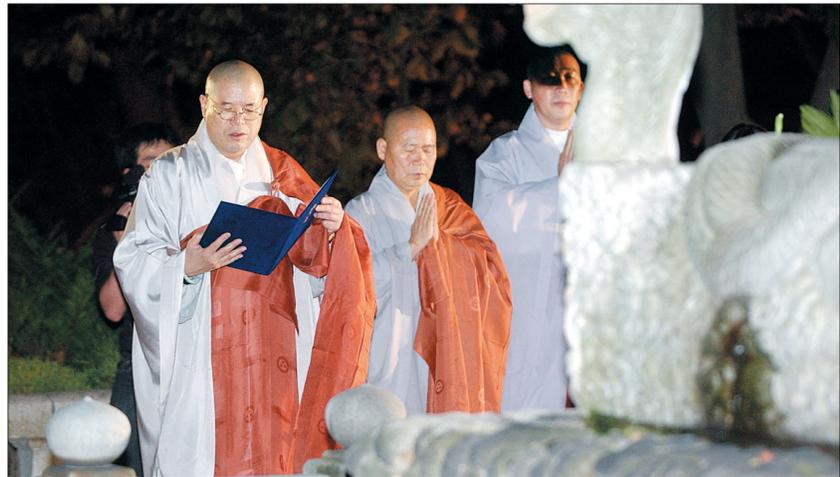
"개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사미(니)까지 종단의 구성원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비구(니)만을 구성원으로 인정한 종헌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절차 상 부당하다"는 게 반론의 요지였다. 이에 승탑기산 특유를 비롯한 초선의원 스님들은 "승려의 자격이 아니라 승탑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치자는 지엽적인 문제"라며 "출가자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출가자의 고령화에 따른 종단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시간에 걸친 격론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종회의장 보선스님은 점심 공양 이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한 뒤 휴회했다. 동시에 승탑기산 특유 스님들과 개정안을 반대하는 스님들이 따로 모여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스님들은 총무원이 냈던 대안인 종단 소임의 자격연한을 하향 조정하는 선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정기중앙종회는 지난 18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종헌 48조에 근거 손질해야 할 호계원법 등 관련법령을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중앙종회는 181회 임시회에서 종헌 제48조 개정을 통해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 소정심사위원을 중앙종회가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각각의 위원들을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을 결의하고 자동 해임할 수 있도록 종무원법(소정심사위원)과 호계원법, 법규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불교방송 사장(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 강화와 추진 선인 절차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이 지난 10일 오전 정화운동의 주역 청담스님 부도탑이 있는 서울 도선사에서 한국 불교 중흥의 염원이 담긴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불교정신 회복위해 혼신의 노력”

총무원장 자승스님, 청담·경산스님 부도 참배 종단정화 원력행 찬탄...유지 계승·발전 다짐

“대중사님께서 정화를 천명하면서 이루고자 하신 불교의 정신회복과 민족문화 중흥 등 과업을 이루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0일 오전5시30분 서울 도선사(주지 선묵스님)와 적조사(주지 대각스님)를 찾아 정화운동을 주도했던 청담·경산스님을 추모하고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호법부장 덕문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등과 도선사를 찾아 주지 선묵스님의 안내로 대웅전과 마애석불을 참배하

고, 호국 참회원에 위치한 청담스님 진영에 꽃다발을 올렸다. 이어 청담스님 동상과 부도탑, 사리탑을 잇따라 참배하고 발원문을 낭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발원문에서 “청담 대중사를 위시한 종단 정화의 대보살님들의 원력행을 찬탄하고 감사하며, 나아가 그 유지를 길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청정 종단 건립과 부처님 정법의 회복, 그리고 민족문화정화의 장달이라는 대원력을 실현하는데 모든 정진력을 다하겠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끌 총무원장이 되도록 보살피 주시길”을 서원했다.

이어 북한산 적조사를 방문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주지 대각스님의 안내로 동국선원 내 자리한 경산스님 진영을 참배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을 내치려 역임했던 경산스님의 사리탑을 찾아 참배하고, 발원문을 통해 불교중흥의 의지를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정화운동에 헌신했던 큰스님들을 참배하고, 정화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오늘 시간을 마련했다”며 “종단 정화의 고귀한 정신과 역사를 후학들도 잘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정화 당시 활동했던 스님들의 신앙 활동과 정화 관련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 다.

안익수 기자 jsahn@ibulgyo.com

사회부-국제교류위, 27일 '한국불교 세계화 세미나'

조계종 사회부와 국제교류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3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불교와의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태국, 라오스, 미얀마, 티베트 등 동남아 국가의 불교를 주제로 각국의 불교현황과 특징, 승가교육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차관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산청 도성사 주지 인법스님, 최연철 동국대 강사가 각각 주제 발표하며, 김홍구 부산외대 교수, 김재성 서울불교대학 원대학교 강사, 양승규 중앙승가대 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불교계 무시 영남알프스 개발 물의

통도사·석남사 수행환경 보존차원서 강력대응

울산시(시장 박맹우)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불교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환실에서 박맹우 시장 주재로 영남알프스를 산악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은 영남알프스 보전과 산악관광 및 레저 활동을 위해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가

지산 권역은 역사·문화·예술 체험 스페셜 권역은 연수 및 산악레저체험 스페셜 권역은 간월산 권역은 가족형 휴양 및 휴식 체험 스페셜 권역은 산악특화 및 극기체험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영남알프스 개발과 관련해 지역 불교계와 어떠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의 보고회가 있기 전까지 가지산 권역 토지 소유주인 울산 석남사에서는 산악관광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2면에 계속

홍콩 교민불자들이, 남도사찰 순례 4면

정병은 경남동부·울산지사장

고암 정병례의 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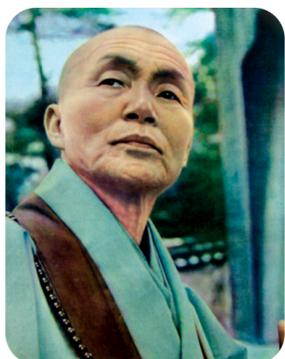
입맞춤 소동

社告
불교신문 2010 신춘문예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0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불교문학에 관심 있는 신진작가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합니다.

접수기간 : 2009년 11월16일(월)~12월16일(수)까지
공모대상 : 불교문학에 관심이 많은 신진작가
공모분야 :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시조-각 5편, 동화-원고지 30매 내외, 평론-원고지 60매 내외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작 선정
상 금 : 단편소설 450만원, 동화/평론 각 350만원, 시/시조 250만원
당선작 발표 : 2010년 1월 1일 불교신문 신년특집호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5층 전법회관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문 의 : (02)730-4488(신춘문예 담당)
불 교 신 문 사

追 靑潭大宗師 涅槃38周忌 追慕大法會 慕



〈증창조 청담대중사 진영〉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이시며 도선사의 증창조이신 청담 대중사 열반 38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조계종단을 청정비구승단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는 데 앞장서셨던 청담 대중사님의 업적과 사상을 되새기고 종단의 인정과 불법이 날마다 증장되기를 발원하는 이번 38주기 추모대법회에 종단의 고승대덕 및 불자님들께서 무루 동참하시기를 앙망합니다.

일 시 : 11월 15일(음력 9월29일) 일요일, 오전10시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조실 보광 혜정 회주 진불장 혜성 부조실 경하 현성
주지 선묵 혜자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청담문도회, 청담장학문화재단, 복지법인 해명복지원
학교법인 청담학원, 강북청소년수련관, 사부대중 일동

